

초급장교의 베트남 전쟁 참전 수기 '석도의 투혼' 감동적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전쟁은 의문투성이의 역사로 남아있다.

최강국 미국은 '통킹 만 사건'을 계기로 1964년 북베트남(월맹)에 폭격을 가한 이래 1968년까지 약 55만 명에 이르는 지상군을 파병했다.

남베트남(월남)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미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한국 역시 30만 명이 넘는 전투 병력을 파병했다.

하지만 미국은 3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낸 채 패퇴하고 말았다. 미군이 시종일관 고전한 이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나름 혁혁한 전과를 올린 한국군도 1만6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철군하고 말았다. 1975년 북베트남군과 베트남의 협공을 받은 남베트남은 공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질레야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지유진영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비역 대령 김형석(74)은 당시 신춘내기 장교로 1966년 수송선 빅토리아호를 타고 남베트남에 상륙한 이래 1968년까지 3년 동안 정글에서 베트남과 사투를 벌였다.

그의 자서전 '초급장교 아전근무-석도의 투혼'(지식공감 펴냄)은 초급장교가 패배한 내리는 전투를 치르면서 진정된 지휘관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담았다.

동시에 미군은 물론 한국군이 이 전쟁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의 기록을 담은 베트남 전쟁의 비망곡이기도 한다.

김 대령이 회고한 1, 2차 님호아 전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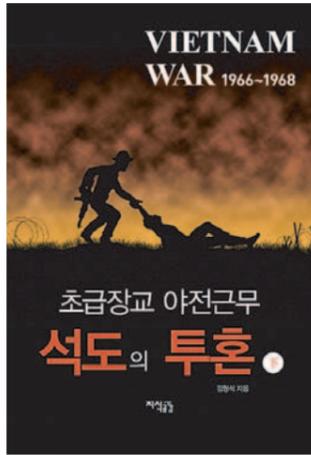


서의 패배는 이 전쟁에서 한국군이 펼친 전략 전술의 문제점을 공개한다.

가령 당시 채명신 주월 한국군사령관은 '100명의 베트남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김 응은 다분히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명분은 훌륭했으나 일선 부대의 전술 운용에는 큰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한다.

남녀노소, 비전투원을 혁명 일꾼으로 활용한 월맹의 전술은 실로 변화무쌍했고, 명분에 발목이 잡힌 일선 부대는 희생자를 낸 뒤에 허둥지둥 대응하는 일을 반복했다.

김 대령은 "한국군은 이 전력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지 못했다"며 "한국군 장교들은 정규전 부대만이 전쟁을 주도하고 정예부대만이 승리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더욱이 전공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고해 훈장을 받는 지휘관들의 행태도 부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전투력에 피해를 입혔다고 평가했다.

실패의 역사만 기록된 것은 아니다. 매복, 동공수색, 식수조달, 포로 진술 등 아전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이 획득한 전략적 유연성은 베트남 전쟁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라고 김 응은 전한다.

이 책에는 후배 군인들이 참고할 수 있

도록 당시 전투 상황도와 함께 자신의 전략적 판단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병태 전 국방부 장관은 추천사에서 "시중의 참전수기가 자신과 부대의 실패를 묻어두고 상황을 미화하여 독자가 영웅적 활동에 감동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 책은 저자와 그가 속했던 상·하급자의 활동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숨김없이 사소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어지간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보통의 소대장으로 열대의 정글 속에서 겪은 온갖 고초들을 인위적 조작 없이 솔직하고도 담담하게 써놓았기에 오랫동안 여운이 깃든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책을 읽으면 직업군인들은 어디에서도 얻기 어려운 전투실상을 경험하는 동시에 군 복무지표가 될 교훈을 얻을 것이며 역사가들은 월남전의 진실에 매료될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은 젊음을 불태우며 순수한 희생정신을 발휘했던 자랑스러운 자신을 반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김형석 대령은 전 주교교과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합참 합동전략판단장교, 특전사 감찰참모, 해방부대연대장 등을 역임한 뒤 예편해 KBS안 전실장을 지냈다. 현재 북극성안보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야호 '석도'(石道)는 '돌밭 길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집스럽게 군인의 길을 걸어온 노병(老兵)의 삶을 은유한다. /이성주 기자



'옥, 봄빛을 입다' 주제 특별전 25일~7월10일 마한관서 전시

익산 유적전시관이 <옥, 봄빛을 입다>라는 주제로 오는 25일에서 7월 10일까지 40일간 금마서동공원 내 마한관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마한 사람들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전하는 옥 장신구와 백제 사리 공양구, 고종 황제와 명성왕후의 옥보, 왕비의 장신구와 무형문화재 옥장의 작품 등 옥 관련 유물 70여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는 당시 사람들이 선호했던 옥의 빛깔과 옥에 담긴 의미로 나누어 <옥, 봄빛을 입다>, <옥, 봄빛을 입다>, <옥, 봄빛을 입다>, <옥, 봄빛을 입다> 등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유적전시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봄빛을 담은 화려한 옥 장신구와 고종황제의 옥보 등 귀한 유물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서동축제가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고백(포로포즈) 팔찌 만들기> 체험과 전시연계 행사인 <무형문화재 옥장(엄익림 님)>의 시연행사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고백 팔찌 만들기 체험은 서동축제가 열리는 5월28일과 29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까지 진행되며(선착순 예약 20명), 무형문화재 시연행사는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진다. 특별전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유적전시관 ☎(063) 859-48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참신한 전북청년 작가 4인 4색전

도립미술관 27일 ~ 7월 3일까지 공모통해 발탁한 4명 60점 전시

전북청년 미술작가들의 성장잠재력을 돋우고 우리지역 현대미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시회가 마련된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오는 27일 ~ 7월 3일 오후 4시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전북청년 2016'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발탁된 작가 4인, 박성수, 박재연, 박종찬, 홍남기의 작품 60점을 선보인다.

한국화, 회화, 설치 작가인 박성수는 작품1(여백)에서 동양과 서양,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리고 이념과 같은 거의 모든 것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개념 사이에 있는 존재하는 생각을 여백으로 그려낸다. 먹으로 칠해진 부분보다 비워진 공간, 여백을 능동적으로 담아낸다.

조각 작가인 박재연의 작품1(bloom-보다)은 만개한 꽃과 눈동자의 이미지를 조합해 조형화했다. 작품의 주제는 타인이 아닌 자신으로 마음의 움직임, 즉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춤을 추는 모습들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응시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회화, 설치 작가인 박종찬은 서로 다른 장소에 흩어져 있는 15개의 가로수 나무를 사진으로 촬영해 작품2(나무들)을 선보인



조각 작가 박재연 작품1 'bloom-보다'

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도료기에 자연의 일부인 나무를 심어 보았지만, 과연 인위적인 공간인 도심 속에 들어서 있는 나무들과는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물음을 던진다.

영상, 설치, 회화 작가인 홍남기 작품 2(score)에서 1950년대 고전 SF작품인 '지구 최후의 날'의 영화 속 등장인물인 고트 로봇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영상 속 등장인물들은 무엇인가에 홀린 듯 공상현상에서 수동적 또는 능동적으로 노동의 형태를 모호한 행위로 반복한다. 작가는 이러한 반복 행동들은 공포의 기억에서 오는 것들이라고 표현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작가들은 차후 <아

시현대미술전 2016) 및 <호남의 현역작가들 2017> 등 분관 기획전시 참여와 아시안 작가교류에 추천된다.

전북도립미술관 장석원 관장은 "미술관은 이번 전시의 디스플레이는 작가의 의도에 따를 것이다. 이는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시회 관람은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문의 290-6874 /정해은 기자

고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서울 '한강 봄꽃 축제' 참가

고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대표 조순호)는 지난 21일 서울시 한강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한강 봄꽃 축제'에 참여해 고창군의 문화예술을 서울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한강 봄꽃 축제를 맞아 고창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판매전에 함께 참여했다.

이날 공연은 음악, 무용, 국악 분야 5개의 공연팀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한강을 찾은 서울시민들에게 예뻐고 창치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지역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교류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를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시 재생 '공간문화대상' 공모

'삶과 문화가 생동하는 더 좋은 장소를 찾습니다.'

(사)한국건축가협회(회장 배병길)가 '2016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7월15까지 공모한다.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지난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우리 일상의 생활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제정되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 지자체, 법인, 시민단체 및 개인에 대해 시상하고 격려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대통령상 1작품),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작품), 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4작품)으로 뽑는다.

우수상에는 ▶ 거리, 광장 등을 창의적인 구상으로 좋은 장소를 만든 사례에 주는 거리마당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한 사례에 주는 누리쉼터 ▶ 지역·세대간의 소통과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에 주는 두레나눔 ▶ 우리역사? 문화자원을 보존? 활용하여 전통문화와 역사적 고취를 이끌어낸 사례에 주는 우리사랑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시상된다.

수상자(단체)에게는 부상으로 상금이 수여되며 최종 수상자는 오는 10월 중 개최되는 '2016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기간에 수상식과 함께 작품전시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02-741-1583 /이성주 기자

너도나도 '채식주의자' 주말에만 2만5000부 판매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을 받은 작가 한강(46)의 연작소설 '채식주의자' 인기가 쉽사리 식지 않고 있다.

23일 출판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20~22일 '채식주의자' 판매량은 2만5000부를 넘겼다.

온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는 20일 4822부, 21일 3639부, 22일 3624부로 집계했다. 인터넷서점 예스24는 20일 4736부, 21일 2180부, 22일 2108부로 조사했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20일 1985부, 21일 936부, 22일 1054부이 팔렸다고 전했다.

2007년 출판사 창비에서 출간된 '채식주의자'의 맨부커상 수상 이전의 총 판매량은 2만1부였다.

예스24에 따르면 '채식주의자'는 17일 맨부커상 수상 이후 현재까지 총 판매량은 3만 8595부, 전자책은 2051부로 총 4만 646권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교보문고는 맨부커상 수상 직후인 16일부터 22일까지 '채식주의자' 판매량을 2만19035부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채식주의자' 포함 한 작가 저서의 전체 판매량은 3만5448부다.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한 작가의 작품은 내서가 17종, 외서가 4종이다.

'채식주의자'는 베스트셀러차트도 휩쓸고 있다. 22일 기준 교보문고 인터넷 일간 베스트셀러 차트 1위, 예스24 국내도서 종합 일별 베스트셀러 차트 1위, 알라딘 종합 베스트셀러 차트 1위를 차지했다.

한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창비·2014)의 순위도 높다.교보문고 인터넷 일간 베스트셀러 차트 4위, 예스24 국내도서 종합 일별 베스트셀러 차트 2위, 알라딘 종합 베스트셀러 차트 2위다. /이성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24일>

<p>▷쥐띠 46년생: 분주한 것에 비해 이득은 적은 운. 60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 72년생: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라. 84년생: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성의표시가 없다면 구설에 휘말리게 되니 주의하라.</p>	<p>▷소띠 49년생: 사적인 일은 불리한 운이다. 61년생: 매사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다.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세워 움직여라. 85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좋은 운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금전거래를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놀라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운. 74년생: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라. 86년생: 무리한 욕심은 진퇴양난의 길에 빠지게 하니 주의하고 타인의 조언을 구하라.</p>	<p>▷토끼띠 51년생: 작은 것에 만족함이 편안하다. 63년생: 계획적으로 타인을 대하지 마라. 75년생: 매사 몸과 마음을 겸허히 하고 인정시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운이다. 87년생: 강력한 리얼리티 나타나 신경전이 예상되는 운</p>
<p>▷오뎅띠 52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나중에 편안해진다.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76년생: 사소한 일에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니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88년생: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천천히 전진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p>	<p>▷뱀띠 53년생: 한사람의 편을 들면 상황이 악화되니 주의하라. 65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지출이 생긴다. 77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지나 큰 소원은 이루어지기 어려워니 욕심은 버려라.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빛을 발하며 좋은 결실 얻어.</p>	<p>▷말띠 54년생: 식복이 있는 운. 66년생: 매사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다. 78년생: 뒷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니 주저하지 말고 결행하라. 90년생: 작은 노력을 해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p>	<p>▷양띠 55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 67년생: 동료와 일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79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 91년생: 주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운이다.</p>
<p>▷원숭이띠 56년생: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68년생: 지나친 의욕은 일을 느리게 할 수 있으니 너무 넘치지 말고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라. 80년생: 자신의 목표와 해야 할 일을 기억해야. 92년생: 정신적으로 방황할 수 있는 운.</p>	<p>▷닭띠 57년생: 투자나 투기는 불리한 운이다. 69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 81년생: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 운이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하다. 93년생: 사소한 거짓말이 큰 재앙을 불러오는 운이니 조심하라.</p>	<p>▷개띠 46년생: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 될 수 있는 운. 58년생: 고독함을 즐겨야 하는 운이다. 70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82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니 새로운 시작은 금물이며 현상유지가 길하다.</p>	<p>▷돼지띠 47년생: 기급적 외출은 심기라. 59년생: 매사 예방이 필요한 운이다. 71년생: 시비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립은 피하고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마라. 83년생: 방심은 금물이다.</p>